

# 광주 땅값 전년대비 4.77% 올랐다

### 지난해 상승률 전국 3번째, 전남은 3.7% ↑ 평균 못 미쳐 빛그린산단 개발 호재 등 영향...지역 토지 거래는 감소

지난해 광주지역 땅값이 전년 대비 4.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별 중 땅값 상승률이 서울과 세종시에 이어 세번째이며, 전국 평균치보다 0.85% 가량 높은 수치다.

전남지역 땅값은 전년대비 3.9%가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치에는 약간 못 미쳤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가는 3.92% 상승했다. 땅값 상승률은 전년(4.58%) 대비 0.66%포인트 내린 것이다.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 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5.29%), 세종(4.95%), 광주(4.77%), 대구(4.55%), 경기(4.29%), 대전(4.25%), 인천(4.03%), 전남(3.9%), 부산(3.76%), 강원(2.66%), 전북(2.60%), 경북(2.38%), 충북(2.22%), 충남(1.63%), 경남(0.56%), 울산(0.35%), 제주(-1.77%) 등의

순이다.

광주 주요 상승지역 및 사유를 살펴보면 빛그린산단지역 내 개발호재 및 산가 등 주택 재개발지역과 평동3차 단지 사업원활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동구 용산지구 개발사업 시행 및 재개발구역 진행에 따른 부근 일대 지가상승에 힘입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지역은 장성군 첨단3지구 연구교육단지 사업 진척 및 광주-장성 광역도로 사업 확정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와 화순군 도곡온천단지 재생사업 추진 및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지가변동률은 2015년 2.87% 상승한 이후 2016년 2.82%, 2017년 4.17%, 2018년 5.26% 등 해마다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지역도 2015년 2.8% 상승한 이후 2016년 2.6%, 2017년 3.9%, 2018년 4.0% 등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광주(-20.7%)와 전남(-4.1%)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는 감소한 판

면 대전(11.3%), 대구(7.3%), 부산(3.4%), 인천(2.9%), 울산(2.8%)은 증가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전년 대비 광주(-13.8%)와 전남(-4.7%) 등 전국 12개 시도는 감소했으며, 대구(3.7%)·충북(1.3%)·대전(0.7%)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작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290만2천필지(1천869.6km<sup>2</sup>·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연간 토지거래량(318만6천필지) 대비 8.9% 줄어든 것이다.

시·도별로는 대전·대구·부산·인천·울

산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했고 광주·전남·서울 등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의 작년 거래량은 102만4천필지로 전년(108만9천필지) 대비 6.0% 감소했다. 대구·충북·대전은 거래량이 늘었고 광주·전남·울산 등은 감소했다.

한편,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은성기자

## 국내증시 외투 4만8천여명 미국·일본이 40% 이상 차지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4만8천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투자자를 합하면 40%가 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감독원 등록 외국인 투자자는 4만8천58명으로 전년 말보다 1천358명 늘었다. 이 중 개인 투자자는 1만1천657명이고 기관 투자자가 3만6천401명이다.

기관 투자자는 펀드가 2만3천64명으로 가장 많고 연기금 2천305명, 증권사 등 997명, 은행 739명, 보험회사 512명, 기타 8천784명 등이다. 기관 투자자는 펀드나 기관 1곳을 1명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만5천840명으로 전체의 33.0%에 달하고 일본은 4천170명으로 8.7%다.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맨제도 3천595명으로 그다음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1998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쌀 많이 애용하세요” 전남도와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쌀을 나눠주는 등 광주·전남쌀과 돼지 소비촉진 애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애리기자

## 작년 부동산펀드 23조원 늘었다

국내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와 사모를 통틀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99조3천870억원으로 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펀드 유형별 설정액은 사모가 96조1천8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모는 3조2천10억원이었다.

부동산 펀드 전체 설정액은 1년여 전인 2018년 말의 75조5천464억원보다 23조8천316억원(31.5%) 늘었다. 2014년 말의 29조6천98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3.3배로 불어났다.

같은 날 부동산 펀드 순자산 총액은 102조2천181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작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 중소·소상공인 경영안정 4천500억원 투입

### 도, 기업당 최대 5억 대출시 이자의 1.1-2.5% 지원

전남도는 27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4천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2천700억원, 창업과 경영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천800억원,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 투자, 공장 증 개축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7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운영자금은 전남도와 협약한 13개 은행의 협조자금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을 대출받으면 도는 대출이자의 연 1.1-2.5%(우대기업 1.4-2.5%)를 지원해준다.

일본 수출 피해기업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하고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스마트공장, 조선업종 등도 업종별로 자금을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연 2.0-2.25%(변동) 저리로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기자

자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시설자금의 경우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소상공인자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이 적기 지원돼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국가자격검정시험 응시자 17% ‘쑥’

### 광주상의 대행 검활 등 분야...최근 10년 내 최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대행하는 국가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의가 대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시험과 워드프로세서 국가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가 6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17%(1만47명)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응시자를 기록한 수치다.

상의는 “지난해 수험료 수입도 13억3천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억6천800여만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기자

응시자가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 채용 확대에 관심이 커지는 국가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상의가 작년에 시험장(5석 규모)을 한국에서 두 곳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의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 시험에서 컴퓨터활용능력시험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보유하는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어 국가 자격검정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며 “작년에 응시생 편의를 위해 시험장을 한 곳 더 늘린 것도 응시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다음달 6일까지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0년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40명의 입교생은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혁신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4차 산업분야 등 제조혁신 분야를 위해 4차 산업분야 등 제조혁신 분야의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주력)산업 영위 업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전남지역특화산업은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첨단운송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3년 이내인 청년창업자의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관련 장비인프라, 창업교육 및 코칭, 판로개척 등 초기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임후성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❶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❷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❸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❹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매 매

# 영광테마파크

(구 영광청소년수련원)

- 대 지: 1만여평
- 건 축: 15동(대강당,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 지 목: 학교용지, 잡종지, 전·답, 논밭매장
- 매매가: 협의 후 조정
- 임 대: 2억원, 월1500만

010.2488.6214 (신영순 공인중개사)